

# 강강술래

任 東 權

강강술래는 노래인 동시(同時)에 놀이이어서 음악(音樂)과 유희(遊戱)가 혼합(混合)된 미분화예술(未分化藝術)로서 종합성(綜合性)을 띄고 있으며, 노래의 구절(句節)마다 「강강술래」를 되풀이 하는 후렴과 반복음(反復音)이 주목(注目)된다.

전라남도(全羅南道) 해안지방(海岸地方)에 민족전래(民族傳來)의 민요(民謠)요 유희(遊戱)인 강강술래가 있다. 원시예술(原始藝術)은 삼위일체(三位一體)의 미분화(未分化)이었던 것이 시대(時代)의 발전(發展)에 따라 각기 분화독립(分化獨立)을 하였다. 그러나 강강술래는 노래로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요, 노래와 동시(同時)에 놀이가 병행(併行)되고 있으니 아직도

미분화상태(未分化狀態)에 있다.

강강술래란 무슨 뜻이며 또 언제부터 시작(始作)하였는가 하는 문제(問題)는 여러 설(說)이 있으나, 대체로 종합(綜合)해 보면 두 가지로 구분(區分)할 수 있으니 임진란설(壬辰亂說)과 민족고유(民族固有)의 유희설(遊戱說)로 나누어진다.

## 1. 임진 왜란설(壬辰倭亂說)

「강강술래」란 말은 원래(元來) 「강강수월래」로서 한자(漢字)로 기록(記錄)하기를 「강강수월래(强羌水越來)」라 하였으니 1912년에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실시(實施)한 「이언리요(俚諺俚謠) 및 통속적(通俗的) 독물조사(讀物調査)」에 기록(記錄)된 것을 비롯하여 일부학자(一部學者)들 사이에 주장(主張)되고 있고, 현지(現地)의 고노(古老)들 사이에 믿어지고 있다. 즉, 강강수월래(强羌水越來)란 「강강(强羌)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온다.」는 뜻으로 임진란(壬辰亂) 때 왜병(倭兵)이 선단(船團)을 끌고 침구(侵寇)하였으므로 국민(國民)들로 하여금 경각심(警覺心)을 갖게 하기 위(爲)하여 충무공(忠武公) 이순신장군(李舜臣將軍)이 지어 노래 부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설(說)이 일반적(一般的)으로 믿어지고 있으니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예(例) ①

임진왜란시(壬辰倭亂時)에 이순신장군(李舜臣將軍)은 망가진 낡은 배 열 두척으로 3백여(餘)의 왜선(倭船)을 격파(擊破)하는 데는 여간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충무공(忠武公)은 의병술(疑兵術)로 갯마을 부녀(婦女)들을 모이게 하여 강강

술래 춤을 추도록 하였고 큰 소리를 내어 노래 부르게 하였다. 이 일이 적(敵)에게는 이쪽의 군사(軍士)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뒷날 이곳 남해안(南海岸) 사람들은 충무공(忠武公)을 경모(敬慕)하는 마음에서 충무공(忠武公)이 시킨대로의 춤과 노래를 불렀으니 지금까지 전(傳)해 오는 것이다.

(노석경씨(魯錫徑氏) 담(談), 1962年 9月 14日 전남매일신문(全南每日新聞)에서)

### 예(例) ②

강강술래는 임진란(壬辰亂) 때에 처음으로 생긴 노래이다. 왜병(倭兵)의 침공(侵攻)에 남자(男子)는 모두 동원(動員)되어 죽고 여자(女子)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판국(版局)에 우리의 약세(弱勢)를 보일 수 없으며 충무공은 한 피를 냈다.

즉(卽), 수(數) 많은 부녀자(婦女子)를 동원(動員)하여 남장(男裝)시켜 우수영(右水營) 동(東)쪽에 있는 옥매산(玉埋山)에 올라 산(山)을 둘러 강강술래를 하게 하였으니, 왜군(倭軍)이 보며 수(數) 많은 군사(軍士)들이 그칠줄 모르고 행진(行進)하는 광경(光景)을 보고 놀랐다.

따라서, 강강술래는 충무공(忠武公)의 창안(創案)한 것이며 의병술(擬兵術)의 하나이고, 강강술래는 강강수월래(強羌水越來)가 옳다. (진도읍(珍島邑) 이기호(李基昊)(67歲) 박희재(朴熙在)(73歲) 양옹(兩翁) 담(談))

<page 75 그림>

### 예(例) ③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 전란(戰亂)이 심(甚)하여 충무공(忠武公)은 적은 수(數)의 군선(軍船)을 가지고 왜선단(倭船團)을 우수영(右水營) 앞의 좁은 여울로 유인(誘引)했다. 옥동(玉童) 앞 바다의 격전(激戰)에서 왜적(倭敵)을 많이 죽였으므로 바다는 마치 피로 물들인 듯하였으니 이 곳을 「피바다」라고 불렀으며, 이곳에 있는 섬을 「피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또, 좌수영(左水營) 앞에 있는 「울도섬」에 쇠줄을 매어 왜선(倭船)이 지나갈 때에 줄을 당기어 적선(敵船)을 모조리 침몰(沈沒)시켰으니 이 지방(地方)에서는 우는 아이도 「울도」 하면 그친다고 한다.

이 무렵에 병력(兵力)이 모자란 충무공(忠武公)은 그 허세(虛勢)를 적(敵)에게 보일 수 없으니 진도(珍島) 둔절리(里) 후산(後山)에 곡창(穀倉)을 의장(擬裝)하고 부여자(婦女子)를 동원(動員)하여 색(色)옷을 입고 술래를 들게 했다. 이 광경(光景)을 본 왜적(倭敵)은 군사(軍士)가 많은 것을 보고 놀래어 달아났다고 한다.(좌수영(左水營) 홍준홍(洪俊弘)(61세(歲)) 김범진(金範珍)(52세(歲)) 담(談))

## 2, 민족고유유희설(民族固有遊戲說)

강강술래는 임진왜란시(壬辰倭亂時)에 처음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이전(以前)부터 있었던 것이니 민족고유(民族固有)의 전래(傳來)의 유희(遊戲)라는 주장(主張)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강강수월래」가 아니라 「강강술래」라고 주장(主張)하며, 수월래(水越來)란 후세(後世) 사람들이 억지로 부쳤다고 주장(主張)한다.

예(例) ①

함화진씨(咸和鎭氏)는 그의 저서(著書) 『조선음악통론(朝鮮音樂通論)』( P.10, 마한조(馬韓條))에서 『이 때(마한(馬韓))의 노래라고 추상(推想)되는 몇 절(節)이 전(傳)하여 있으니 즉 아래와 같다』고 하여 강강수월래(혹(或) 수월래(水越來))를 기록(記錄)했다. 강강술래가 어떠한 근거(根據)로 마한시대(馬韓時代)의 노래인지 논증(論證)은 없으나 여하튼 마한(馬韓)의 노래로 추상(推想)하였으니 오래 전승(傳乘)된 민족(民族) 고유유희설(固有遊戲說)을 지지(支持)한 셈이다.(함화진저(咸和鎭著) 조선음악통론(朝鮮音樂通論) 을유문화사(乙酉文化社) 간(刊))

예(例) ②

강강술래란 한학자(漢學者)나 유생(儒生)들이 주장(主張)하는 것처럼 강강(強羌)이나 수월래(水越來)는 아니다. 순수(純粹)한 우리말의 강강술래라고 생각하며, 오랜 옛날부터 우리 민족(民族)이 가지고 있는 고유(固有)한 유희(遊戲)이며 노래이다. 본래(本來)의 민족유희(民族遊戲)를 이충무공(李忠武公)이 의병법(擬兵法)으로 채택(採擇)한 것을 계기(契機)로 해서 중흥(中興)했을지 모르나 후세(後世)의 와전(瓦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진도읍(珍島邑) 정승한씨(鄭乘漢氏) 담(談))



<page 75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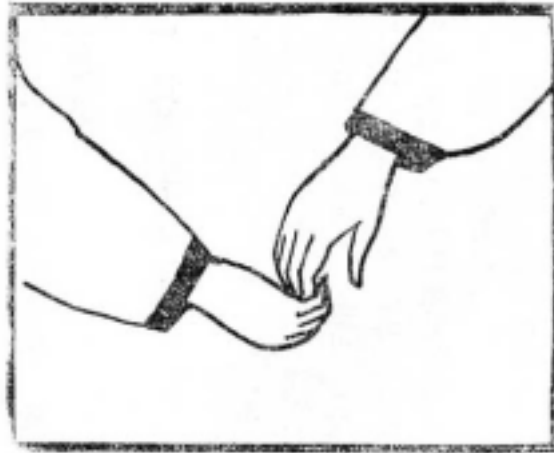
<page 76 그림>

예(例) ③

강강술래의 뜻은 「강」은 감의 전남방언(全南方言)이며 「술래」는 도적이나 순라(巡邏)에서 왔다. 서로 손을 잡고 원(圓)을 만들어 돌면서 술래를 잡아내는 것이다. 강강술래를 강강수월래(强羌水越來)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盲目的)으로 중화(中華)를 숭상(崇尚)하던 한학자(漢學者)의 억지이며, 이충무공(李忠武公)이 왜적(倭敵) 강강(强羌)이라고 부를 까닭도 없거니와 수월래(水越來)도 억지 취음(取音)이다.(광주시박물관장(光州市博物館長) 노석경(魯錫徑氏) 담(談), 1959年 9月 14日 전남매일신문(全南每日新聞))

이상(以上)의 두 설(說)은 서로 상반(相反)된 견해(見解)를 보이고 있어 각자(各自) 제멋대로 해석(解釋)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강강술래를 강강수월래(强羌水越來)라고 주장(主張)하기에는 너무나 무리(無理)가 있다. 우리 한학자(漢學者)나 일인들이 다같이 「강강(强羌)이 수월래(水越來)했다。」고 해석(解釋)하는 데는 양자(兩者)가 정반대(正反對)의 상반(相反)된 의미(意味)에서 자기만족(自己滿足)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한학자(漢學者)는 강강(强羌)이 수월래(水越來)했으나 이충무공(李忠武公)에 의(依)해서 격퇴(擊退)시켰다는 데 역점(力點)을 둔것같고, 일인(日人)들은 자기(自己)네를 강강(强羌) 일인자로서 정복(征服)했다는 자부(自負)를 가지고 강강수월래(强羌水越來)를 서로가 긍정(肯定)하기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page 76 그림>

그러나, 강강술래는 노래인 동시(同時)에 놀이이어서 음악(音樂)과 유희(遊戱)가 혼합(混合)된 미분화예술(未分化藝術)로서 종합성(綜合性)을 띄고 있으며, 노래의 구절(句節)마다 『강강술래』를 되풀이 하는 후렴과 반복음(反復音)이 주목(注目)된다. 한국민요(韓國民謠)의 음운상특징(音韻上特徵)은 운(韻)의 반복(反復)이 많고 후렴이 있다는 것이다. 즉(卽), 같은 운(韻)을 자주 되풀이할 뿐 아니라 노래 끝에는 후렴이 있어 음악적효과(音樂的效果)를 낼 뿐 아니라 고조(高調)된 흥분(興奮)을 조성(助成)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같은 반복음(反復音)이나 후렴은 고려속요(高麗俗謠)이후 현대민요(現代民謠)에서 허다(許多)한 예(例)를 찾아 볼 수 있다. 『술래』란 말은 전남지방(全南地方)의 방언(方言)으로 원(圓) 또는 원형(圓形)을 뜻한다. 강강술래의 춤이 원무(圓舞)란 점(點)으로 미루어 술래는 수월래(水越來)한 한음(漢音)에서 유래(由來)한 것이 아니고 강강술래의 원조무(圓組舞)와 유관(有關)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학자(漢學者)나 고노(古老)들은 흔히 한문(漢文)을 숭상(崇尚)한 나머지 국음(國音)도 한자(漢字)로 표기(表記)하고 해석(解釋)하려는 일이 많으니, 그러한 이의 강인부회(強引附會)에서 수월래(水越來)라 하여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 왜병(倭兵)이 바다를 건너온 사실(史實)과 결부(結付)시키려고 한 것이다.

강강술래는 음력(陰曆) 8월 15일 야(夜)의 1年中 가장 달 밝은 밤에 마을 부녀자(婦女子)들이 거의 총출동(總出動)하여 집단적(集團的)으로 춤추는 것으로 미루어 원시민(元始民)은 월야(月夜)에 부족전체(部族全體)가 조무(組舞)하는 일이 많았으니, 그런 점(點)으로 보아 강강술래도 원시시대(原始時代)에 월야(月夜)에 조무(組舞)하던 원시무용(原始舞踊)의 한 형태(形態)라고 해석(解釋)하는 것이 타당(妥當)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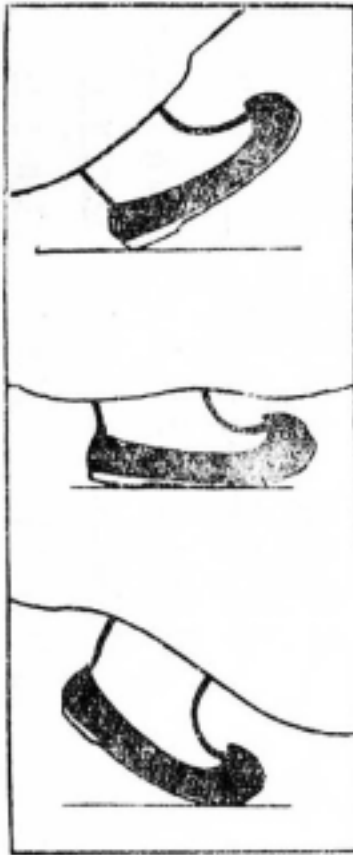


<page 76 그림>

따라서, 강강술래가 언제 누구에 의(依)해서 기원(起源)하였는가 하는 문제(問題)는 알 수 없으며, 원시민족(原始民族)의 민속유희(民俗遊戱)였던 강강술래 놀이가 임진란(壬辰亂) 때에 이충무공(李忠武公)에 의(依)해서 착안(着眼)되고 의병술(疑兵術)로 채택(採擇)되어 중흥(中興)을 맞이하고 적개심(敵愾心)을 앙양(昂揚)하고 민족정기(民族正氣)를 고취(鼓吹)하는 유희(遊戱)로 바뀌어졌을 가능성(可能性)도 있다. 그러므로, 강강술래는 이충무공(李忠武公)의 창안(創案)이 아니요, 그 이전(以前)에 이미 존재(存在)했던 전래(傳來)의 민족유희(民族遊戱)이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강강술래는 현재(現在)는 전국적(全國的)으로 전파(傳播)되고있으나 민속유희(民俗遊戱)로서 주(主)로 성행(盛行)되고 있는 곳은 전남해안일대(全南海岸一帶)이니 해남군(海南郡), 무안군(務案郡), 진도군(珍島郡), 완도군(莞島郡), 강진군(康津郡), 보성군(寶城郡), 장흥군(長興郡), 고흥군(高興郡), 등이고 그 중(中)에서 가장 심(甚)한 곳이 해남(海南)과 진도(珍島)의 양군(兩郡)이다. 이 곳에서는 중추절(仲秋節)에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강강술래로 즐기고 있다.

현지민(現地民)들은 각기자기(各己自己)네 고향(故鄉)이 강강술래의 본고장이라고 주장(主張)하는 경향(傾向)이 있으며, 또 그렇게 믿고 있어서 강강술래를 이충무공(李忠武公)과 관련(關聯)시켜 자부심(自負心)을 가지고 있다.



<page 77 그림>

그 예(例)로서, 우수영(右水營)의 김범진(金範珍), 홍준홍(洪俊弘) 두 옹(翁)은 강강술래는 좌수영(左水營)이 먼저라고 주장(主張)하고 있으며, 진도(珍島)의 이기호(李基昊), 박희재(朴熙在) 두 옹(翁)은 진도(珍島)가 먼저라고 상반(相反)된 의견(意見)을 말하고 있다. 그 근거(根據)로서 이충무공(李忠武公)을 마지막까지 모시고 싸운 군사(軍士)가 13명인데 그 중(中)에 진도인(珍島人)이 칠명(七名), 해남인(海南人)이 삼명(三名), 기타(其他)가 삼명(三名)이었다고 하며, 당시진도(當時珍島)의 남자(男子)들은 모두 전지(全紙)에 나아가 전사(戰死)하고 노인(老人)과 부녀자(婦女子) 밖에 남지 않았으며, 진도(珍島) 동(東)쪽에 있는 『원통골』의 촌명(村名)은 그 때에 왜병(倭兵)에 의(依)해서 원통하게 몰살(沒殺) 당(當)한 데 유래(由來)한다고 전(傳)한다. 따라서, 피해(被害)를 가장 크게 입은 진도(珍島)에서 먼저 강강술래가 발생(發生)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主張)들은 강강술래가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발생(發生)했다는 것을 전제(前提)로 해서 주장(主張)되는 것이니 민족전래(民族傳來)의 유희설(遊戱說)을 긍정(肯定)하는 경우에는 그 설(說)이 무너지고 만다.

강강술래 놀이는 소녀(小女) 또는 부녀(婦女)가 마당에서 원형(圓形)으로 서로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원무(圓舞)한다. 한사람이 맥임소리로 가사(歌詞)를 부르면 나머지

사람들은 받음소리로 『강강술래』를 후렴한다. 처음에는 진양조로 느리지만 점차로 빨라지며 나중에는 빠른 템포로 뛰게 된다. 그래서, 이 지방(地方)에서는 강강술래 하는 것을 『한바탕 뛰자』고 한다.

가사(歌詞)는 일정(一定)한 것이 아니고 맥임소리 하는 사람이 즉흥적(卽興的)으로 얼마든지 가감(加減)할 수 있으며 전래하는 여러 민요를 함께 엮어서 부르기도 한다.

노래의 박자(拍子)와 발자국이 맞아야 하며, 우회전(右廻轉) 또는 좌회전(左廻轉)을 자재(自在)로 하고 전체(全體)가 한 호흡(呼吸)에 움직이게 된다. 중추절(仲秋節)에 마당이나 잔디밭에서 색색(色色) 옷을 입고 젊은 부녀자(婦女子)의 뛰는 모습은 아름답고 장관(壯觀)이다.



<page 77 그림>

가사(歌詞)를 소개(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 강 강 술 래

술래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종다 술래돈다 강강술래  
 앞에가는 군사들아 강강술래  
 발맞춰서 뛰어가세 강강술래  
 곁에사람 보기좋고 강강술래  
 먼데사람 듣기좋게 강강술래  
 억신억신 뛰어가세 강강술래  
 강노강노 강노씨야 강강술래  
 유자강노 석류씨야 강강술래  
 지날대로 꺾었던가 강강술래  
 남산밑에 남도령아 강강술래  
 남산초록 다베어도 강강술래



좌죽델랑 베지마라 강강술래

술래술래 떠나간다 강강술래  
우리오빠 노리개는 강강술래  
책가우가 노리겔래 강강술래  
우리형님 노리개는 강강술래  
연지분통 노리겔세 강강술래  
우리우리 노리개는 강강술래  
설명드리 노리겔래 강강술래  
어머니의 노리개는 강강술래  
막내딸이 노리개라 강강술래  
이내막내 노리개는 강강술래  
바늘골무 노리겔세 강강술래

저건너라 목은밭이 강강술래  
임자없어 목엿던가 강강술래  
쟁기없어 목엿던가 강강술래  
잘된대로 차조갈고 강강술래  
못된대로 메조갈아 강강술래  
골골이 돔부심게 강강술래  
돔부따는 저처녀야 강강술래  
앞돌아라 앞해보자 강강술래  
뒷돌아라 뒷해보자 강강술래  
앞매뒷매 곱다마는 강강술래  
네머리끝 드린댕기 강강술래  
비단이나 공단이나 강강술래  
비단공단 곱다마는 강강술래  
니아댕기 나를주라 강강술래

새벽서리 찬바람에 강강술래  
울고가는 저기력아 강강술래  
울었으면 너울었지 강강술래  
잠든나를 왜깨느냐 강강술래  
편지상동 기러기면 강강술래  
편지한장 전해주라 강강술래  
문을열고 나와보니 강강술래  
기러기는 간곳없고 강강술래  
억만장의 구름속에 강강술래  
달과별이 열었더니 강강술래  
검은글씨 흰종이에 강강술래  
편지한장 보내면은 강강술래

우리부친 보련만은 강강술래  
요내나는 언제가서 강강술래  
우리부모 만나볼까 강강술래

사랑창창 뒤창밖에 강강술래  
건너초당 내다보니 강강술래  
범나비가 앉았길래 강강술래  
그나비를 쳐다보니 강강술래  
이천자라 배운글을 강강술래  
적수만장 다잇었네 강강술래  
서당안에 학도들아 강강술래  
서당밖의 학도들아 강강술래  
선생앉은 글을봐라 강강술래  
평첼라는 매눈이다 강강술래  
우리부모 오시거든 강강술래  
매에 채어 갔다말고 강강술래  
글에 반해 갔다하오 강강술래  
대밭에는 대도총총 강강술래  
물우에는 버금총총 강강술래  
하날에는 별도총총 강강술래  
강변에는 돌도총총 강강술래  
닭가는데 꼬꼬소리 강강술래  
말가는데 원앙소리 강강술래  
우리벗님 어디가고 강강술래  
중추명절 모르느고 강강술래

달아달아 밝은달아 강강술래  
이태백이 노든달아 강강술래  
저기저기 저달속에 강강술래  
계수나무 박혔으니 강강술래  
옥도끼로 찍어내어 강강술래  
금도끼로 다듬어서 강강술래  
초가삼간 집을짓고 강강술래  
양친부모 모셔다가 강강술래  
천년만년 살고지고 강강술래  
천년만년살고지고 강강술래

진도군 벽파진(珍島郡 碧波津) 박춘심 23歲

강 강 술 래

개야개야 연지개야 강강술래  
연지찍고 분바르고 강강술래  
청살부채 손에들고 강강술래  
아장아장 걸어가서 강강술래  
옥단춘아 문열어라 강강술래  
반달각시 들어간다 강강술래  
네가무슨 반달이나 강강술래  
초생달이 반달이지 강강술래  
첩첩산중 연약새야 강강술래  
근간드려 울지마라 강강술래  
나비나비 흰나비는 강강술래  
후초발을 찾아가고 강강술래  
개골개골 청개고리 강강술래  
능수버들 찾아간다 강강술래  
구름구름 가는구름 강강술래  
경상도로 가는구름 강강술래  
우리엄마 만나거든 강강술래  
이삼사월 진진해에 강강술래  
점심끓고 못산다고 강강술래  
쌀섬이나 보내라고 강강술래  
우리아베 만나거든 강강술래  
동지선달 설한풍에 강강술래  
맨발벗고 못산다고 강강술래  
신죽이나 보내라게 강강술래

달도밝다 달빛산아 강강술래  
초를미여 모신산아 강강술래  
담우게는 영실나무 강강술래  
영실홍실 우리아베 강강술래  
조선국을 빌여타고 강강술래  
산청강을 간다더니 강강술래  
비시력대 걸렸는가 강강술래  
해가져도 아니오고 강강술래  
날이가도 아니오네 강강술래

천량짜리 우리잡씨 강강술래  
만량짜리 옷을입고 강강술래  
신앙금당 말을타고 강강술래  
청살부채 손에들고 강강술래  
쌩긋쌩긋 웃는것이 강강술래

조선왕의 해당화야 강강술래

새야새야 파랑새야 강강술래  
녹두밭에 앉지마라 강강술래  
녹두꽃이 떨어지면 강강술래  
창포장사 울고간다 강강술래  
저기가는 저선비야 강강술래  
저새조곰 날켜주라 강강술래  
내가날켜 나라갈까 강강술래  
제가절로 날아가제 강강술래  
달떠온다 달떠온다 강강술래  
동해동천 달떠온다 강강술래  
저기시가 누말인가 강강술래  
방호방은 어디가고 강강술래  
달뜨는줄 모르는가 강강술래  
달뜨는줄 안다마는 강강술래

기가막혀 못가겠다 강강술래  
기막힐때 올라든가 강강술래  
종고존날 날받아서 강강술래  
날을보러 올라했지 강강술래

대밭에는 대도총총 강강술래  
하날에는 별도총총 강강술래  
꽃밭에는 꽃도총총 강강술래  
하날에다 베틀놓고 강강술래  
구름잡아 잉에걸고 강강술래  
등등떠가는 구름경상 강강술래  
총총하날에 별도많다 강강술래

진도군 진도읍(珍島郡 珍島邑) 정이년 50歲

(필자(筆者) · 서라벌 예대학장(藝大學長))

## 선사지리학(先史地理學)

선사시대(先史時代)에 관(關)한 지리적 문제(地理的 問題)를 연구(研究)하는 학문(學問)이다. 지리학(地理學)의 분야중(分野中) 시간(時間)에 관(關)한 범주(範疇)를 취급(取扱)하는 역사지리학(歷史地理學)의 일부분(一部分)이며, 통상(通常) 동일시대(同一時代)대에 쓰여진 문헌(文獻)이 나타나는 이전(以前)의 시대(時代)를 연구(研究)의 대상(對象)으로 한다.

패총분포(貝塚分布)에 의(依)하여 구해안선(舊海岸線)을 복원(復原)한다든가, 고분(古墳)의 입지(立地)와 일사(日射)등 지하수(地下水)와의 관계(關係)를 고찰(考察)한다든지 또는 취락(聚落)과 선사시대(先史時代)의 교통로(交通路)를 연구하는 등 많은 과제(課題)가 있다.

선사지리학(先史地理學)은 지리학(地理學)인 고(故)로 궁극(窮極)의 목적(目的)은 선사시대(先史時代)에 있어서의 지역성(地域性)의 특질(特質)을 파악(把握)하는 데에 있다. 지역성(地域性)의 파악(把握)은 지역(地域)을 구분(區分)하는 데서 얻어지는 고(故)로 환경론적(環境論的)인 문제(問題)에만 국한(局限)되지 않고 선사지역(先史地域)의 구분 비교(區分 比較)가 이 학문(學問)의 궁극(窮極)의 목적(目的)이 된다.

환경론적(環境論的)인 문제(問題)는 고고학(考古學)의 지리학적(地理學的) 연구법(研究法)에 가까우나 지지(地誌)의 문제(問題)는 선사지리학(先史地理學)에도 중요(重要)하다.